

‘혼돈의 그리스’ 디폴트 임박...유로존 이탈하나

은행 영업중단·증시 휴장...유로존 두번째 ‘자본 통제’

내달 5일 국민 투표 상관없이 사태 수습까지 장기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임박했다.

구제금융 협상 결렬-디폴트-‘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저녁 TV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로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는 예금을 안전하며, 연금 및 (공무원) 급료 지급도 마찬가지로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침착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밤에라도 ECB는 그리스 은행들에 유동성을 늘려주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중단 조치를 최소한 국민투표 다음날인 내달 6일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새벽 관보를 통해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인출은 29일 오전 중단했다가 오후 중 재개할 예정이며, 일일 인출 금액은 60유로(7만4000원)로 제한된다.

영업중단 기간에도 그리스 내에서의 인터넷뱅킹은 허용되지만, 해외로의 자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리스 아테네 증시도 이날 휴장하기로 한 가운데 휴장이 이주 내내 지속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써 그리스는 2013년 키프로스에서 이어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스는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약 1조9000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 27일 새벽 국민투표 실시를 전격 선언하면서 주말 동안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대거 몰려들어 뱅크런 사태가 촉발됐다.

이에 ECB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사실상 증액 요구를 거부했다.

은행 영업중단 조치는 사실상 그리스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 정부가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채무를 갚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치프라스 총리가 유로존의 거부에도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을 계속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그리스 정부가 이를 감지할 수도 있다.

그리스 정부가 이를 감지 않더라도 IMF가 민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가 공식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그리스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디폴트를 향한 행로를 걷게 된다.

물론 그리스 정부가 IMF 채무를 갚더라도 국제 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는 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전망이다.

한국시장 자금 이탈 불가피...충격은 적을 듯

그리스 사태가 선진시장보다 신흥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국도 ‘소나기’를 피해갈 수 없다.

그리스 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에 유입한 외국계 자금 가운데 유럽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럽 자금의 유출에 따른 변동성 확대도 우려된다. 다만, 다른 신흥국과는 비교해 한국의 경제 체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이에 따라 그리스 사태는 극심한 혼돈 속에서 내달 5일 예정된 그리스 국민투표를 분수령으로 향후 진로를 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가 상관없이 그리스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서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불가피하다.

협상안 찬성 결과가 나오면 협상안을 거부한 치프라스 내각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통한 새 정부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나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카라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채권단의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47.2%, 반대는 33.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7.8%가 유로존 잔류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 그렉시트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25.2%에 그쳤다.

반대로 협상안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행보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그리스 협상 결렬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두 정상은 그리스의 개혁 지속과 유로존 내 성장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양국이 그리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도 치프라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가능한 위기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리스에 최선이라고 촉구했다.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의 결정과 그리스 정부의 은행 영업중단 및 예금인출 제한 조치 등이 28일(현지시간) 이어지면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임박했다. 사진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구제금융 협상안 국민투표 실시 전격 선언 후 시민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아테네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공식 출범

국제 금융질서 ‘새판짜기’ 시동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일정

2013년	10.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인도네시아 방문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제안
2014년	7.3	방한 시진핑 주석,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AIIB 창립회원국 참여 요청
2015년	3.12	영국 가입 결정
3.16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가입 결정	
3.26	한국 가입 결정	
3.28	러시아 가입 결정	
3.29	호주 가입 결정	
3.31	창립회원국 신청 마감	
4.15	창립회원국 57개국으로 확정	
4.27~28	지분율·지배구조 등 AIIB 설립협정문 제정 협상(베이징)	
5.20~22	설립협정문 제정 협상 마무리(싱가포르)	
6.29	협정문 서명식(베이징 인민대회당)	

중 등 57개국 협정문 서명식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사실상 공식 출범했다.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장에서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AIIB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공식 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순방 중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시아의 부족한 기초시설(인프라) 투자 지원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앞으로 융자, 보증,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AIIB의 출범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 도전해 중국이 국제 금융질서

의 ‘새판짜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전략적 의미도 지닌다.

서명식에는 57개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석했지만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50개국이 서명했으며 나머지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을 미룬 국가 중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에 따르면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예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배분된 일부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출범 시 정자본금은 982억 달러로 시작한다.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비(非)상주 출범하되 총회의결에 의해 상주화가 가능하며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57개국은 지난달 말 열린 싱가포르 회의를 끝으로 AIIB 협정문 초안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에 따라 출자비율(지분율)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은 30.34%로 1위를 차지했고 투표권도 25%가 넘는 26.06%를 확보해 사실상 주요 안전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

AIIB는 비회원국 지원, 자본금 변경, 협정문 개정 등 가장 중요한 안건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 투표에 투표권의 75%가 찬성해야 하는 ‘최대다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면 어느 안건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美 탈주범 22일만에 검거

철통 경비를 자랑하는 미국 뉴욕 주 교도소에서 발생한 탈주범이 22일 만에 막을 내렸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뉴욕 맨해튼의 클린턴교도소를 탈옥한 2명 중 남은 1명

인 데이비드 스웨트(34)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스웨트는 교도소에서 48km 떨어진 콘스터 타운에서 캐나다 퀘벡주로 넘어가는 국경을 3km 앞두고 이날 오후 3시30분께 체포됐다.

스웨트는 콘스터를 타운의 도로에서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을 피해 숲속으로 달아나 몸통에 총알 두발을 맞고 병원에 옮

겨져 안정적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스웨트와 함께 탈옥한 리처드 맷(48)은 이를 전에 캐나다 국경 근처에서 국경에서 사살됐다. 맷은 지난 26일 캐나다 국경에서 16km 떨어진 지역에서 캠핑 차량을 강탈하려고 한 뒤에 출동한 국경 순찰대원과 대치하다가 총을 맞았다. 부검 결과 맷은 머리에 총알 세 발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 ①신축 4층건물(총층 13개)
- ②월세 인기좋은 /임대 걱정없음
- ③1층 점포
- ④2층~3층 원룸 10개
- ⑤4층 안집 투룸 1개

월수익 530만 매매가 7억 1천만

- ①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2분 코너(룸20개) 1층상가2개.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엘리베이터있음) 룸20개(1층상가2개.룸18개.주택1개) **매매가1억1천**
- ③ 북구 용봉동 (토90평.건150평) **월수익 450만 매매가 8억원**
- ④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월수익 42만 매매가 8천만**
-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50만 매매가 9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북구 우산동 인보회관 상영지2동 7층사무나건물 월수익 960만 매매가15억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0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원동 수왕지구 4층중3층 88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원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 15평 (상기밀장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4천500만

010-6832-9700

법원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1.서구 금로동 7층중7층(토180㎡, 건295㎡)감정가 6억6천→ 최저가 2억3천
- 2.광산구 월계동(토42㎡, 건135㎡)감정가 2억→최저가 1억4천(첨단상가)
- 3.서구 지평동 (토44.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서구 화정동(토150평, 건276평)감정가 12억→최저가 8억4천
- 2.전남 순천 인제동(토496.8㎡, 건1119.76㎡)감정가 13억→최저가 9억
- 3.담양 남면(토1427평, 건1251평)감정가 32억 →최저가 7억4천
- 4.서구 쌍촌동(토63평, 건148평)감정가4억9천→최저가 4억9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북구 운암동(토66평, 건193평)감정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 2.동구 대인동(토780.2㎡, 건1992.57㎡)감정가 24억7천→최저가 14억
- 3.북구 오차동(토114평, 건190평)감정가 4억2천→최저가 2억9천
- 4.순천 4층건물(토205평, 건221평)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3억

공장/모텔/주유소

- 1.북구 오차동(토 445평, 건182평)감정가 12억7천→최저가 12억7천
- 2.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평, 건614평)감정가 41억 →최저가 15억

직원 구함

남, 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추천 특수물건

- 1.서구 화정동 (근린주택) (토150평, 건276평)
1층주차장(10대가능)2층음식점
3층노래연습장/4층주택
감정가 12억→최저가 8억4천
- 2.북구 운암동 (근린시설) (토 160평, 건283평)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무나)
감정가 8억5천 →최저가 5억9천7백
- 3.광산구 산기동(주유소)
(토430평, 건170평)
산기병원 북동측 인근, 하남대로변
감정가 15억7천→최저가 11억
- 4.동구 대인동(근린시설)(토236평, 건602평)
(은행, 소방서, 우체국주변상권중음
지하.사무실/1층점포/2층~4층사무실)
감정가24억7천→최저가14억
- 5.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펜션)
(토1427평, 건1251평)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감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

010-6670-9800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 노후대비 적합

경매직원모집

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

**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분

062-382-5500
010-6832-9700